

전남교육청, '정주형 장기유학 확대'로 재도약 선언

민선4기 발전과제 선정 "작은학교 지키기 지역소멸 대응" 유학 온 지역,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 생활하는 것

지난 2021년 시작해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민선4기 전남교육 출범을 맞아 '정주형 장기유학' 확대 등 내용을 보강해 재도약을 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걸음으로 교육을 통한 찾아오는 전남 만들기를 위해 전남농산어촌유학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지난 1년 반 동안의 농산어촌유학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주형 장기유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올 1학기 '해남 복일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지자체(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해남군 사례를 모델링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정주형 장기유학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주형 장기유학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유학생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발전 동력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양질의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제공, 교육청은 학생 모집·배정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 유입형 단기유학의 운영 기간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늘려 사업 운영의 안정화 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아래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전남농산어촌유학은 1년 만에 유학생 수가 네 배로 늘었고,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운영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아 민선4기 전남교육 출범을 계기로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학교도 지키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하는 등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전남교육대전환준비위원회도 지난 7월 25일(월) 도민보고회에서 농산어촌유학을 '전남교육대전환 발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객관적인 사업 성과평가 및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남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전남농산어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총 304명으로 전남 도내 18개 시·군 50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219명(72.0%)은 다음 학기



연장을 희망했다. 연장 희망자 가운데 34명(15.5%)은 5년 이상 장기체류형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022학년도 2학기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신규 참여를 희망한 학생은 86명으로 집계돼 오는 2학기에는 총 305명의 유학생이 19개 시·군, 52개 학교에서 유학생할

을 하게 된다.

전남농산어촌유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www.jne.go.kr/jne/main.do)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 작은학교지원팀(061-060-0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환 기자

장흥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흥교육지원청은 주말(토) 시간을 활용하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관내 진로체험처 11개소

여 7월~8월중에 총 4주간 장흥관내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진로체험처 11개소에서 2022.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진로체험처를 통해 바리스타, 제다사, 목공예, 도예가, 제빵사, 드론조종사, 손바느질 공예사, 조향사, 학예사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로 운영되며

170가정 이상이 신청을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금번 체험을 통하여 자아학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녀와 함께 진로를 탐색 하며 적성과 소질을 알아 가는 계기가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순천대, 지역기업 '애로기술, 함께 풀어요'

2022학년도 SCNU Innovation-lab 사업 수행과제 6개 선정



순천대학교는 최근 대학(원)생들이 주도로 지역 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2022학년도 SCNU Innovation-lab(선도연구실)' 사업을 추진할 6개 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SCNU Innovation-lab(선도연구실) 사업'은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기업이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현장실무 연구역량을 향상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인력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부터 국립대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전력 설비 에너지

패턴 분석 및 고장 진단 기술, △스마트팜 ICT 기자재 고장예지 시스템 개발, △스마트 수질 데이터 수집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개발 등으로 지역 산단 입주기업 및 가족회사 등 6개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 전문성을 연계하여 R&D, 시험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정팀에 기업과 연구 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팀에게는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금을 제공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심춘보 산학협력단장은 "학내 연구실과 실험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연구자의 학문 유입을 촉진하고, 대학의 혁신 기술을 지역 산업체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산학연협력생태계가 조성되어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 인력이 늘어나 연구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진도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학생 안전생활지도 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

진도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 합동 생활지도 기간 중 야간에는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자율방범

대, 읍배미방범대 40명이 참가하여 학교 주변·학원가·청소년 출입이 잦은 놀이시설·노래연습장·방범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탈 행위를 막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생활지도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진도지역 청소년 밀집 지역과 방범 사각지대를 돌아보며, 평소 알지 못했던 장소에서 학생들이 비행과 탈선을 할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유관기관의 생활지도로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